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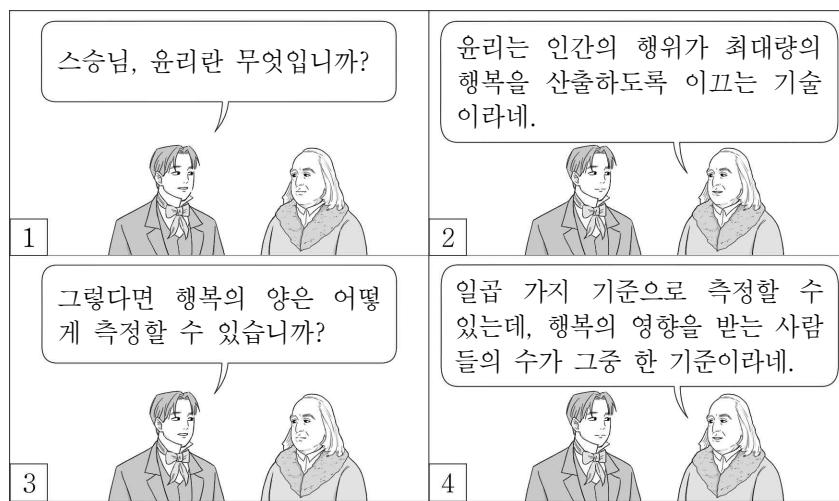
수험번호

3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한다.
- ② 참된 실존의 회복을 위해 보편적 도덕 원리를 초월한다.
- ③ 어떠한 감정에도 초연하기 위해 이성을 계발하여 사용한다.
- ④ 실천 이성이 수립한 법칙에 따라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한다.
- ⑤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삶에서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중간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중간은 이성이 명령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이라는 두 악덕은 서로에게도, 중간에게도 반대이다. 품성적 덕은 어떤 중간과 관련이 있다.

- ① 궁극적 좋은은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에서만 실현된다.
- ② 인간의 악한 행동은 모두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생겨난다.
- ③ 이성은 모든 감정에서 양극단 사이의 중庸을 발견할 수 있다.
- ④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庸이며 지성적 덕에 속한다.
- ⑤ 이성에 따라 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다.

3.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위안을 받는다. 이는 세상이 절대자의 손에 있으므로 모든 일이 절대자의 방식대로 진행되도록 맡겨두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절대자는 위안을 주는 그만큼의 현금 가치를 지닌다.

- <보기>
- ㄱ. 관념의 참됨은 고정된 속성이며 관념에 내재되어 있다.
 - ㄴ. 유용성이 증명된 지식도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다.
 - ㄷ. 신학은 실생활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현금 가치를 지닌다.
 - ㄹ. 신념은 경험적 검증을 거쳐야만 진리로서 판정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지극한 덕으로 다스려지던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욕하였는데 이것을 소박함이라 한다. 소박함으로써 본성은 보전된다. 하지만 인의를 행하여 도(道)에서 벗어나고 예(禮)를 제정하자 사람들이 분열하게 되었다.
을: 군주가 인(仁)을 좋아하면 천하에 적이 없다. 백성에게 인하지 못했음에도 작은 나라를 얻은 경우는 있었으나 천하를 얻은 경우는 없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은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 <보기>
- ㄱ. 갑: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 ㄴ. 을: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업[恒産]을 보장해야 한다.
 - ㄷ. 을: 군주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인을 실현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의로운 행위를 쌓아야 [集義]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5. (가)의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아직 자성(自性)을 깨닫지 못한 미혹한 중생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본성이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당장에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곧 견성(見性)이다.
을: 본래 자성이 공(空)하고 고요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았지만 습기(習氣)는 제거하기 어렵다. 깨달은 후에도 오랫동안 비추고 살펴 마치 소를 기르듯 수행해야 한다.

(나)

- ① A: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본래 같은 것인가?
- ② A: 자신의 본성을 직관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 ③ B: 탐욕에 빠진 중생은 불성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한가?
- ④ B: 깨달음 이후의 수행은 해탈에 이르는 데 필수적인가?
- ⑤ C: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도 단박에 깨닫는 것이 가능한가?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3

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차별하여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른 것이고 두루 서로 사랑하는 것[兼相愛]은 옳은 것이다. 옛날 문왕이 두루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부모와 형제에게도 사사로움이 없었고 상벌이 공평했다.
을: 대규모의 구조적 폭력은 나중에 차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노예로서 미국으로 강제 이송된 아프리카 인에 대한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으로 확산되었고 인종 차별적 사고와 함께 문화적 폭력을 재생산하였다.

- ① 갑: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복 전쟁은 정의롭다.
- ② 갑: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립한다.
- ③ 을: 문화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침해를 은폐하기도 한다.
- ④ 을: 적극적 평화 추구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차별 행위의 중지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이상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세 계층, 즉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각자의 일을 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을: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재화가 충분하여 필요한 물품을 대가 없이 사용하지만 사치나 향락에 빠지지 않는다.
(나)	이상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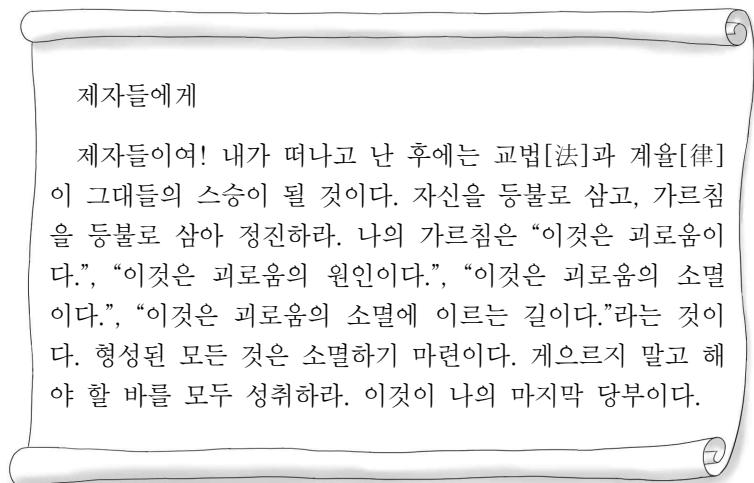
- ① 갑: 정치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 ② 갑: 모든 계층에게 재산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③ 을: 사람들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여가 활동만 즐깁니다.
- ④ 을: 물질적으로 빈곤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 ⑤ 갑과 을: 개인의 선호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 달리 말해, 인간은 신의 양태로서 신의 본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인간을 포함한 사물들의 본질 및 존재는 신의 본성에서 연역된다.
을: 만약 신이 없다면,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 즉 어떤 개념으로 정의되기 이전에 실존하는 존재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실존 이후에 스스로 생각하고 바라는 무엇이다.

- ① 갑: 신은 실체이며 자기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 ② 갑: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을: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항상 주체적으로 행위한다.
- ④ 을: 인간은 실존적 삶을 살기 위해 자유 자체를 선택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가야 한다.

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의 본모습이 즐거움임을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 ② 지혜는 수행의 결과일 뿐이며 수행의 수단은 아니다.
- ③ 사물에 대한 애착[取]이 자비를 실천하는 바탕이 된다.
- ④ 사성제 간의 관계는 인과(因果)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다.
- ⑤ 양극단을 벗어난 수행으로써 존재의 무상함을 통찰해야 한다.

1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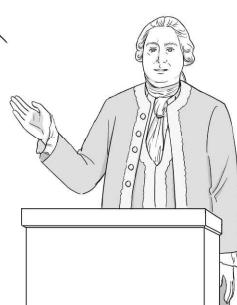
(가)	갑: 바람직한 것은 그것에 내재한 쾌락 때문에, 또는 쾌락 증진과 고통 방지의 수단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런데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지성, 도덕 감정 등에서 얻는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 을: 세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밖에서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 <보기>
- ㄱ. A: 모든 도덕적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쾌락을 증진한다.
 - ㄴ. B: 행복은 의무에서 나온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 ㄷ. B: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성품과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다.
 - ㄹ. C: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덕과 악덕은 대상 속에 있는 성질이 아니라 소리, 색깔, 뜨거움, 차가움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지각(知覺)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위나 성품을 바라볼 때 느끼는 쾌락으로 덕을, 고통으로 악덕을 구별합니다.



- < 보 기 >
- ㄱ. 도덕적 구별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 ㄴ. 선과 악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ㄷ. 도덕에 대한 탐구는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 ㄹ.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모든 대상은 유덕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서양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지만, 우리의 도덕은 사람을 살린다. 우리가 천리와 천도에 순응해야 함을 안 후에 수심정기(守心正氣)하면 천지가 크게 화(和)하게 된다.
을: 서양의 물건은 기괴한 기술과 지나친 교묘함으로 마음을 타락시켜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서양과 교역하면 예의를 지키던 사람도 금수(禽獸)로 타락할 것이다.

- ① 갑: 만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서양 종교를 수용해야 한다.
② 갑: 한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효제의 정신을 보존해야 한다.
③ 을: 서양 문물을 배격하고 유교적 신분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④ 을: 우리의 도(道)로 백성을 교화하고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
⑤ 갑과 을: 외세의 침략에 맞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도모해야 한다.

13. 갑, 을은 중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깨닭은 본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성을 안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에 이르는 것을,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맑이 지극해지는 것을 말한다.
을: 마음을 다하고 본성을 아는 것을 ‘사물을 연구하고 맑을 넓히는 것’으로 삼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 마음이 곧 이치이다.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

- < 보 기 >
- ㄱ.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는 그 자체로 완전한 맑인가?
 - ㄴ. 천리는 본래 선하지만 인욕(人欲)에 가려질 수 있는가?
 - ㄷ. 사물에서 천리를 실현해야 사물은 비로소 이치를 얻는가?
 - ㄹ. 격물과 치자는 마음 안의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학문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 가지만 도(道)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 낸다. 덜어 내고 또 덜어 내면 무위(無爲)에 이르게 되니, 무위하면 이루지 못함이 없다.
을: 학문을 쌓으며 예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군자(君子)라고 하고, 본성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여 예의를 어기는 사람을 소인(小人)이라 한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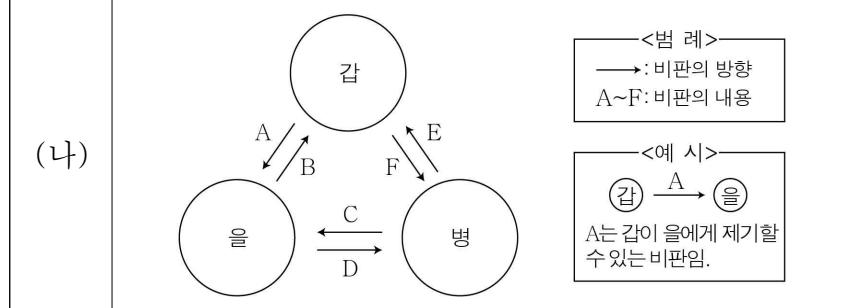
- < 보 기 >
- ㄱ. 갑: 무위로 다스리려면 분별적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 ㄴ. 을: 타고난 본성을 제도적 규범으로써 교화해야 한다.
 - ㄷ. 을: 선을 인식하는 능력은 학문을 통해 형성된다.
 - ㄹ. 갑과 을: 예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각자는 신의(信義) 계약을 통해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받아들인다. 이로써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주권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을: 각자는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포기하고 사회에 양도한다. 이로써 국가 구성원 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다툼을 종결짓는 재판관인 입법부를 지상에 두게 된다.
병: 각자는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일반의지만이 국가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



- ① A와 F: 사회계약의 목적은 자기 보존의 실현임을 간과한다.
② B: 국가 권력이 독점되며 보다는 분할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사유 재산은 사회계약을 통해 법률로 보장됨을 간과한다.
④ D: 주권은 분할이 불가능하며 양도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⑤ E: 주권자는 사회계약 이후에 입법권을 갖게 됨을 간과한다.

1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같다. 이성은 자연에서 조언을 구한다. 이성에 어긋난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이성에 따르는 사람은 좋은 결과에 이른다.
을: 행복해지려면 신을 향유해야 한다.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경멸하면서까지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의 나라를 이루었다.

- ① 갑: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면 이성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 ② 갑: 자연적으로 생겨난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을: 신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
- ④ 을: 오로지 지상의 나라에서만 신이 창조한 악이 존재한다.
- ⑤ 갑과 을: 신과 자연과 인간은 이성을 공통된 본성으로 지닌다.

1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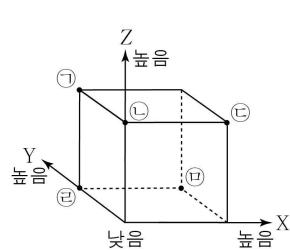
욕(欲), 낙(樂), 성(性) 세 글자를 맹자가 삼충으로 나누었는데 가장 얇은 것이 욕이고, 그다음이 낙이며, 가장 깊어서 마침내 스스로 고치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게 된 것이 성이다. 성은 마음이 좋아하는[嗜好] 바이다. 성을 논하는 자는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말해야 한다.

- < 보기 >
- ㄱ. 본성의 악한 기호는 자주지권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 ㄴ. 형구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는 욕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 ㄷ. 악을 반복적으로 행하면 선을 좋아하는 기호가 소멸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8.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⑦~⑩ 중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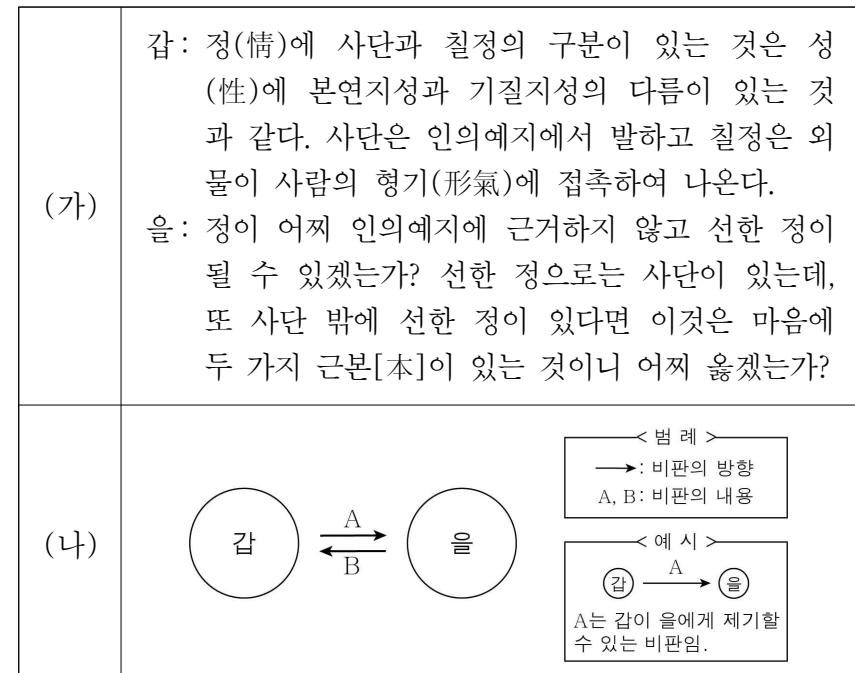
갑: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자원을 낭비한다는 공공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자원을 이용하려는 개인 기업가는 불리한 여건에서 활동하게 된다. 경제 체제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안은 정부 기능의 확장이다.
을: 유효한 경쟁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서 경쟁은 개인적 노력의 좋은 길잡이가 된다. 자생적 질서인 시장에서 경쟁이 유효할 수 없을 때만 정부가 경쟁을 대체한다. 우리가 비판하는 계획은 오직 경쟁에 반대하는 계획일 뿐이다.



- X: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 지출의 확대를 강조하는 정도
- Y: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시장 자율성의 확대를 강조하는 정도
- Z: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의 축소를 강조하는 정도

- ① ⑦
- ② ⑧
- ③ ⑨
- ④ ⑩
- ⑤ ⑪

19.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발한 기(氣)가 이(理)를 주재하면 악이 발생함을 간과한다.
- ② A: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이 발하여 드러난 정임을 간과한다.
- ③ B: 칠정은 인의예지의 실마리[端]를 모두 포함함을 간과한다.
- ④ B: 사단의 선함과 칠정의 선함은 서로 다른 것임을 간과한다.
- ⑤ B: 맑은 기에 불선한 이가 올라타면 악이 발생함을 간과한다.

2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다는 것의 척도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있지 않는 것의 척도이다.

을: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영혼에 있는 유익한 덕 역시 지식이다.

- < 보기 >
- ㄱ. 갑: 선악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의 감각적 경험이다.
 - ㄴ. 을: 덕을 갖춘 사람은 필연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
 - ㄷ. 을: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 ㄹ. 갑과 을: 보편타당한 윤리는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